범어사와 인연 맺은 書畵 한자리에

신축기념 기증전 '소중한 인연 : 서화전'
범어사성보博 10월28일~2023년 2월5일

방장 지유 스님이 기증한 오세창 작품 등
신축개관 준비 5년간 기증 글·그림 전시
만해 등 필력·불법 통한 호국 의미 조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위창 오세창 필 범어사, 지유스님 기증.


경봉 스님 필 화엄, 신성수 기증.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10월 28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신축기념 기증전 '소중한 인연 : 서화전'을 개최한다. 2021년 신축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첫 번째 기증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5년간 신축개관 준비 중에 기증된 글과 그림을 선보인다. 특히 국보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불화와 불교 공예품 등 불교문화재를 중심으로 전시해 왔던 성보박물관에서 근현대 서화가들의 작품까지 함께 선보인다는 점이 새롭다. 이번 전시는 프롤로그 '선찰대본산 범어사'를 시작으로 총 3부로 구성했다.

△프롤로그 '선찰대본산 범어사 : 마음의 근원을 구하는 수행도량'에서는 방장 지유 스님의 기증 유물들로 범어사 성보박물관의 '인연 이야기'를 시작한다. 범어사는 2012년 지유 스님을 초대 방장으로 모시고 '선찰대본산 금정총림'으로 자리매김했다. 위창 오세창의 '범어사', 해옹이 초의 선사에게 쓴 편지글 등을 전시한다.

△1부 '사경(寫經) : 수행과 정진의 과정을 담아내다'에서는 경전을 옮겨 쓰는 수행인 '사경수행'을 통해 묵묵히 걷는 여정의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기현 스님의 '화엄경'과 인장, 무착 스님의 벼루, 고산 스님의 '금강반야바라밀경 10폭 병풍' 등을 전시한다. 특히 1968년 범어사에서 출가한 뒤 사경수행에 정진했던 기현 스님의 유작 '감지금니 화엄경'은 화엄경 80권 전체를 사경한 완질이다. 권마다 12m에 이르는 장중한 사경 속에는 스님의 기나긴 정진수행 전부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게 한다.

△2부 '선(禪) : 부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새기고, 세상을 바라보다'에서는 근·현대 서예가들의 작품을 통해 '禪'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교에서의 선은 마음으로 새기고,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현대 서예가들에게는 '선'에 드는 과정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여 예술로 승화는 좋은 주제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봉 스님, 성파 하동주, 유당 정현복, 청남 오제봉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경봉 스님의 '화엄'은 특히 화엄산림대법회를 통해 〈화엄경〉의 깨달음을 설파한 스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범어사 관음전 편액을 쓴 성파 하동주와 제자 청남 오제봉의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3부 '호국(護國) : 부처의 공덕이 넓은 세상으로 퍼지다'에서는 역사 속 어느 날은 태극기를 들었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수행자이자 문장가, 독립운동가이자 한 나라의 국민이었던 작가, 그들을 이야기한다. 위창 오세창, 만해 한용운, 용성 스님 등의 글씨를 선보인다.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헌신했던 용성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내린 전계증도 선보인다.

동산 스님의 고모부이자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을 집성했던 오세창, 범어사를 중심으로 임제종 운동을 전개한 만해 한용운은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었다. 그들의 필력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진정한 호국의 의미를 조명한다.

2003년 개관한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문화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축 이전하여 2021년 11월에 현재의 위치(금정구 범어사로 296)에 개관했다. 1층 상설전시실과 2층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기증전시실을 마련했다. 별도로 마련된 기증전시실은 기증유물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기증자들이 전한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한다. 박물관은 이번 첫 번째 기증전을 계기로 향후 박물관은 2003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기증받았던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기증특별전을 연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범어사와 작가의 인연, 작품과 기증자의 인연, 기증자와 범어사와의 인연, 그리고 이제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들과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소중한 인연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이란 작품이 품고 있는 역사와 예술성에 기증자의 삶의 여정이 더해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일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범어사 성보박물관과의 소중한 인연들로 선보이는 기증 작품들을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로 인연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에 깃든 韓國美…카메라에 담다

사진전 '양현모, 塔 展'
11월 9일~12월 4일 통인화랑


정림사지 5층석탑 104x68cm

한국 석탑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온 양현모 사진가가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통인화랑(B1)에서 '양현모, 塔 展'을 개최한다.

양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작품 12점을 선보인다.

양현모의 탑 사진은 '탑'이 지닌 상징성을 닮아 있다.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 완성됐다.

양 작가는 일체의 '배경'을 배제시키고 오로지 탑만을 렌즈에 담았다. 탑 뒤에 검은 배경을 설치해 촬영함으로써 탑에만 집중했다. 탑만을 바라본 것이다. 그 결과는 관람자에게로 이어진다. 관람자 역시 작가가 바라보았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다. 탑을 배경으로 인식했던 대중의 시선을 탑 자체로 옮겨 탑의 조형미를 비롯한 모든 미학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탑'이라고 하면 주변의 자연과 배후의 사찰이 어우러진 풍경을 떠오르게 하지만 양 작가는 탑 자체에만 집중했다. 탑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양 작가는 탑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가 실현할 수 없는 빈티지 엔틱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최대 크기(8×10)의 원판 필름을 사용했다. 그리고 탑의 정중앙에서 촬영해 렌즈와 거리에 의한 왜곡현상을 없앴다.

촬영기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전통 초상화 기법에서 방법론을 찾았다. '정신'을 그려내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형상을 통해 정신을 전하기 위해 모든 점과 선이 한 치의 어긋남이 없이 정성을 들여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 양 작가는 그 프로세스를 사진에 적용했다. 현재의 석탑이 지닌 조형과 그 현재의 조형이 품고 있는 '옛날'까지 담아내려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양 작가는 정중앙 촬영을 위한 사다리 등 500kg에 이르는 장비를 탑이 있는 산 속까지 옮겨야 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양 작가의 탑 사진은 그렇게 탑의 과정을 닮아 있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올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번이고 촬영을 했습니다. 혹자는 의아해하지만 저는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자체가 저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듯이 저의 사진도 그런 사진이고 싶습니다."

패션과 인물사진을 찍어왔던 양 작가는 2010년부터 한국 사찰의 전통 탑(석탑)을 찍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500여 점의 탑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한국의 아름다움, 그것이 탑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 작가는 또 다른 소재에 대한 질문에 "아직 탑을 끝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시문의 (02)735-4867

박재완 기자

송곡 조정우 10주기 추모전

통도사성보博 11월 5~20일


애민중생 73x127cm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불교미술의 거장 송곡 조정우 10주기 추모전'을 개최한다. 불모 조정우는 중요무형문화재 초대 단청장이었던 일섭 스님의 제자로, 스승을 말년까지 모시며 작품을 함께했고, 일섭 스님의 많은 제자 중에서도 일섭 스님의 화풍을 가장 많이 닮아 그 실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로 인해 전국 각지에 수많은 탱호와 벽화, 단청작품을 남김으로써 한 시대의 최고 불모로 불린다.

이번 전시는 조정우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제자들이 마련한 것으로, 추모전에서는 '극락 지옥도' 등 조정우의 유작 20여 점과 초본, 습화 등의 유품들이 함께 전시되며, 제자들의 작품도 20여 점 전시된다. 이번 추모전을 시작으로 향후 불모 조정우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를 마련한 제자들은 "오늘 추모전은 스승의 고매한 인품과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선생님의 평생 원력이었던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일시: 11월 19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어떤 것의 본래적 성품인 '본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에 필수불가결하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본성'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필원 외 /신국판양장/432쪽/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